



협회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냉온수기 제조업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도의 의견수렴과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업계와 정부가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데 합의하였다.

- 일 시 : 2010. 9. 2(木), 15:00 ~ 18: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석자 : 부성햇슈 등 5업체
- 내용
 - 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전기비데 제조업체 회의



협회에서는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및 안전점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전기비데 제조업체 회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관계자와 국내 대표 전기비데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제도 도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하였다.

- 일 시 : 2010. 9. 3(金), 16:00~18:00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 석 자 : 웅진코웨이 등 7개 업체
- 내 용
 - 권장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

전원공급장치(SMPS) 안전인증제도 설명회



협회에서는 전원공급장치(SMPS)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협회 신종현 부회장은 “최근 전원공급장치(SMPS)가 LED 컨버터파워모듈로 사용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취득이 의무화되는 등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향후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 일 시 : 2010. 9. 8(水),
- 장 소 : 협회 회의실
- 참 석 자 : 에버넷전자 등 24업체
- 내 용
 - 안전인증제도 및 취득절차 설명
 - 불법제품 단속계획 설명 등

전기매트 제조업체 설명회



협회에서는 전기매트(요, 장판, 방석 등) 제품에 대한 안전성 향상 및 불법·불량 전기용품의 근절을 위하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법전기용품에 대한 단속 방향 및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졌으며,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정취하고 국내 전기매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일 시 : 2010. 9. 10(金),
- 장 소 : 협회 대회의실
- 참 석 자 : 동천의료기 등 60업체
- 내 용
 - 불법전기용품 단속 사례 및 방향 설명
 - 안전관리제도 및 규격설명 등

2010 제품안전의 날 개최

2010년 9월 14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가 주관한 2010제품 안전의 날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제품안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관련 산업 제조 및 수입업체들과 부대행사로 마련된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사업 참여 기업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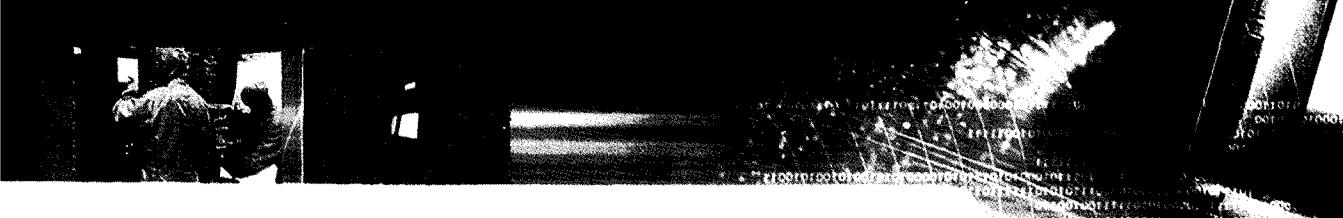
2010

제품안전의 날

제품안전의 날



▲ 관계자 및 관련 단체 4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 행사 이모저모 ※

- ① (주)경안전선 김명일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 ② 기술표준원 송재빈 국장이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많은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여 제품안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2010 제품안전의 날

정부포상

- 유공자 부문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1	(주)경안전선	김명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2	(주)위너스	김창성	대표이사	산업포장
3	동화시스템(주)	유은상	대표이사	대통령
4	알티전자(주)	김창현	대표이사	국무총리
5	(주)서양네트웍스	배종호	부 장	"
6	(주)월드조명	박종철	대표이사	장관
7	유한킴벌리(주)	여상직	부 장	"
8	넥상스대영(주)	김백규	부 장	"
9	(주)리홈	장재열	과 장	"
10	쉴드라이프 코리아(주)	이명신	대표이사	"
11	제일모직(주)	박용식	과 장	"
12	(주)PN풍년	정용관	차 장	"
13	(주)청우편스테이션	이재홍	대표이사	"
14	보령메디앙스(주)	양지산	팀 장	"
15	(주)일신전기산업	김종인	부 장	"
16	(주)디엔디전자	서순기	대표이사	"
17	상도전기통신(주)	이장복	부 장	"
18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백용선	부 장	"
1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주한	과 장	"
2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서호	과 장	"
21	(재)fit시험연구원	최익재	과 장	"
22	한국전기신문사	진시현	수석기자	"
23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안부일	모니터요원	"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유공자 부문(계속)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24	키즈뱅크	하 효 종	대 표	원 장
25	(주)나루씨이엠	김 태 림	대표이사	"
26	인하전기	조 철 휘	대 표	"
27	(주)아모스아인스가구	이 규 영	부 장	"
28	하이전구	주 영	대 표	"
29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이 건 희	대 리	"
30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변 용 옥	모니터요원	"
31	(사)한국생활안전연합	최 순	모니터요원	"
3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최 기 보	대 리	"
33	(사)온라인쇼핑협회	김 종 경	팀 장	"
3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안 정 은	계 장	"
35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김 지 영	과 장	"
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최 용 만	주 임	"

- 단체 부문

연 번	소 속	성 명	직 위	훈 격
1	웅진코웨이(주)	홍 준 기	대표이사	장 관
2	유양산전(주)	임 대 영	대표이사	"
3	에이치제이산전(주)	홍 성 권	대표이사	"
4	(주)대경산업	이 규 대	대표이사	"
5	실버팍스	이 재 완	대 표	"
6	두색하늘	송 주 흥	대 표	"

2010제품안전의날 산업포장 수상 『(주)위너스 김창성 대표이사』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창조로 성장하는 기업”

(주)위너스
김창성 대표이사



대한민국이 기술업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1979년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전기과 실습생으로 배선기구 수출 제조회사에 첫 발을 디딘 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오로지 한길만을 걸어오며, 국내외 배선기구 제조회사들이 외국회사에 인수 또는 합병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위너스는 꾸준한 기술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로 글로벌 배선기구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술력을 인정받고 배선기구 분야의 토종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젊고 알찬 기업이다.



1. 배선기구 분야의 산증인

1970년대 말 국내의 전력공급은 110V 전압에서 220V전압으로 승압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주택200만호 건설이 추진되어 그야말로 배선기구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매입형 전기배선, 이동형 콘센트(멀티콘센트)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런 호황속에 배선기구 제조업체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특성상 다양한 부분(생산, 품질, 개발 등)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다양한 경험은 자연스럽게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공과 실질적

인 기술개발로 연결이 되었다. 멀티콘센트 상하관 조립방법이 이전에는 볼트조립 방식이었으나 우연히 방문한 가스라이터 공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배선기구 업계 최초로 초음파 용착을 이용한 접합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이 도입하여 사용하는 표준처럼 되었고 특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국내 최초로 배선기구 선진시장인 일본지역에 매년 약300만불 이상을 수출하는 등 국가 이미지 제고와 함께 국가산업 발전은 물론 배선기구 업계의 안전성 극대화와 품질 선진화에 꾸준히 이바지 하였다.



▲ 2010제품안전의날 수상자들과(좌에서 3번째, 김창성 대표이사)

2.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위기를 기회로

1996년 창업과 함께 이듬해에 찾아온 외환위기의 먹구름 아래에서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소형스위치 재고를 처분하기 위해 절전멀티 콘센트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이를 배선기구 선진시장인 일본에 수출하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제품의 용도와 형상은 같지만 철저히 분석해 내용이 다른 제품, 사용자에게 편리하고 필요한 고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활동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는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서 2년여 기간의 집중적인 연구개발 기간을 거쳐 완성된 세계최초 결로방지 콘센트(NET인증)를 제품화에 성공하였고 이 제품은 2008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전문위원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수록이 되었으며, 2010 전기설비 전시회에서 전기설비 관련자들로부터 전기화재 예방 및 절감에 획기적인 제품으로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누전 및 트래킹화재 예방기능을 갖춘 결로방지 콘센트 기술 개발로 인하여 롯데건설 아파트(롯데캐슬)에 배선기구 공급자 선정(30,000세대, 매출액 60억)이 실현 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독일이나 프랑스 등 배선기구 선진시장에서

수입해오던 식탁용 푸쉬풀 방수콘센트(시장규모는 년간 100억 추정) 개발에 성공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가구의 활용도를 높여주고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출시이전에 국내 굴지의 아파트 건설 업체인 롯데캐슬 등 주요건설사의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등 상담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3.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창조

위너스의 사훈은 지속적인 혁신과 가치창조이다. 가치가 없는 제품은 단지 쓰레기에 불과할 뿐이며, 고객이 찾이주는 편리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한다. 기업을 이루는 자본과 기술, 설비와 사람등 4대요소가 있지만,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으로 나머지 3대요소인 수동적인 요소를 잘 조합하여 운용하면 아주 이상적인 기업 형태가 유지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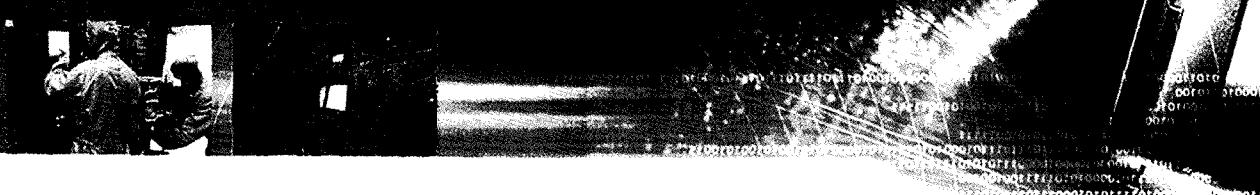
위너스는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워크숍 행사를 실시하는데 전반기에는 당년도 목표설정 및 달성방안에 대하여 연수를 하고, 후반기에는 설정된 목표의 달성을 검토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목표인식을 공고히 하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인당 1회이상의 사내 또는 위탁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에 힘쓰도록 하며, 제안에 제한두지 않는 제안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채택된 제안의 실천 및 연구개발 업무에 제안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4. 직원 누구나가 창업자가 되기를 원하는 위너스

위너스는 쾌적한 실내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작업장 및 사무실 전체에 전기를 사용하여 냉난방을 실시



▲ 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성공 제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하고 있으며, 임직원을 위한 차량운행, 동호회 활동지원, 식사제공 및 기숙사제공, 주40시간 근무제 조기도 입, 금연수당 지급, 사내도서실 운영, 제안제도, 매월 우수부서 시상, 생일행사, 단합대회, 송년회등 다양한 복리후생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위너스에서는 임직원 누구나가 창업자가 되기를 원한다. 창업자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언제나 주인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에 따른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창업을 이룩한 위너스 임직원은 협력업체로 또는 매출을 달성하는 영업소 개설등으로 더 높은 고지를 향해 오늘도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5. 더불어 사는 사회

최근 수년사이에 많은 배선기구 제조사들이 다국적기업인 로그랑이나 파나소닉에 인수 합병되어 생산 기자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이전하고, 판매기지로서의 역할과 부동산 투자처에만 머무르고 있는 적금의 현실속에서 위너스는 저가의 노동력이 풍부한 해외로의 진출이 수년이내에 한계에 이른다는 결론하에 국내에서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생산라인을 대부분 지역주민들로 채용하였으며 전사적인 품질 보증과 원가절감 및 기능혁신을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배선기구는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며 업종의 특성상 부품가공, 사출, 프레스, 포장지 등 많은 부분의 아웃 소싱이 필요한데, 사업장 근처의 재활작업장이나 장애인 단체를 위너스 협력업체로 등록함으로 인하여 지역사회 재활작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내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및 인근 초등학교의 어린이 장학금 지급과 포천 실비타운을 방문하여 주기적인 경로봉사활동을 지원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배선기구 협의회 일원으로 IEC규격과 KS규격 개정 요청 및 동종업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자문을 해주고 있으며, 경기중소기업협의회 포천기업협의회 회장으로 포천시 관내 중소기업인 100여 명과 함께 불우이웃돕기와 장애우 문화활동을 후원하고 있다.